광주 2순환로 방음터널 보수 소송전

광주순환도로투자사, 시공사 상대 10억 손배訴

양측 굴지 로펌 동원 30개월째 지리한 법정싸움

최근 광주 제2순환도로가 통행료 인상 논란을 빚는 등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운데 도로관리 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방음터널 보수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 소송은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맡고 있으며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3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도 소송 원고와 피고 모두 관련 사실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광주순환도로투자(주)·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10년 1월4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10억538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이후 모두 12차례의 변론과 모두 74차례의 감정서·사실확인서·의견서·열람신청서 제출 등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소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소송은 제2순환도로 내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내구연한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아연도금이 된 방음판이 강우·강설·온도변화·자동차배기가스 등에 부식되는 정도에 대한 감정서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중 학운교 인근의 방음터널 200m구간이 문제가 돼 순환도로투자(주)가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자보수와 재설치를 놓고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방음터널은 순환도로 공사과정에서 순환도로투자(주)가 대우건설에게 위탁을 줘서 이미 지난 2000년 완공된 시설물"이라며 "광주시는 해당 시설의 보수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유지·관리·보수는 모두 순환도로투자(주)에서 맡고 있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2곳중 1곳 "불법"

광주·전남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곳 중 1곳이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환경부, 검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95곳 가운데 59%인 56곳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청은 56곳 가운데 28곳을 고발 등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곳은 개선 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주의 한 금속절삭기계 제조업체와 반도체검사 및 제조업체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유를 보관중이던 폐유 30ℓ 씩을 우수로를 통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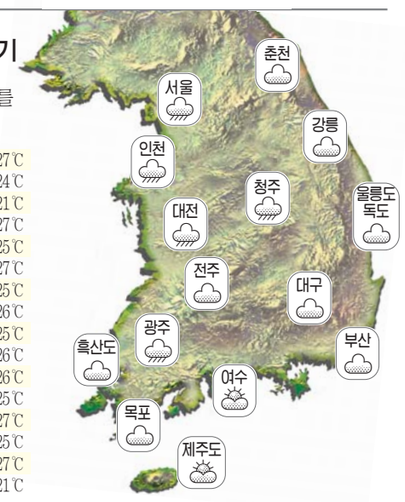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0분 해짐 19시 40분 달뜸 13시 49분 달짐 01시 12분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낮과 저녁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한때비	17/27℃
목 포	흐림	17/24℃
여 수	구름많음	17/21℃
나 주	흐리고한때비	16/27℃
완 도	구름많음	16/25℃
구 례	구름많음	15/27℃
강 진	구름많음	16/25℃
해 남	구름많음	15/26℃
장 흥	구름많음	15/25℃
순 천	구름많음	17/26℃
영 광	흐리고한때비	17/26℃
진 도	구름많음	15/25℃
전 주	흐림	17/27℃
군 산	흐리고가끔비	17/25℃
남 원	흐림	15/27℃
흑산도	흐림	16/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매우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밀물	썰물
목포	08:43 21:30	01:50 14:38
여수	03:52 16:53	10:11 22: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목)	6/1(금)	2(토)	3(일)	4(월)	5(화)
날 씨						
최저/최고	17/27	17/28	17/28	16/29	16/29	16/29

논둑 손질 중 한숨 돌리고 모내기 철이 시작된 29일 광주시 서구 마륵동 들녘에서 한 주민이 논둑을 손질한 뒤 풍년을 기대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 축구 국가대표·야구 선수 부녀자 납치 강도

국가대표를 지낸 전직 프로축구 선수 김동현(28)씨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가 고급 외제차를 몰던 여성 운전자를 납치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은 26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박모씨를 흉기로 위협, 차량을 빼앗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씨와 윤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범행 전날 저녁 청담동의 극장 앞에서 시동이 켜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강남 일대를 4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박씨가 혼자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표적으로 삼아 납치했다.

그러나 박씨는 차가 속도를 늦춘 틈에 탈출,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뒤쫓으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에게 112신고를 요청해 출동한 경찰이 김씨 등을 검거했다.

상무 선수 시절 만난 이들은 경찰에서 사업투자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대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초심대로 전남교육 발전에 온 힘"

장만채 업무 복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9일 "초심대로 전남교육 발전과 변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직원조회에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장 교육감은 "제 개인의 억울함이나 고통보다 전남교육이 입은 상처와 자존심 훼손 그리고, 전남교육 가족들의 슬픔이 저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며 "진실과 정의는 사법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믿고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구속으로 미뤄졌던 현안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역교육청 사업 설명회와 현장 교직원과의 대화, 좋은 학교 박람회 개최 등은 바로 시작하고 농어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무지개 학교, 전국 유일의 선상학교, 인사제도 개선, 교직원 업무경감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거짓·장난 112신고땐

민·형사 책임 묻기로

경찰이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간 1만건을 넘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대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거짓 신고자에 대해 구속이나 구류 등 처벌을 하고 출동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연합뉴스

줄기세포 논문조작 논란

서울대 강수경 교수…국내·외 과학계 파문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서울대 수의과대 강수경 교수가 논문 조작 논란에 휩싸여 국내·외 과학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리트랙션와치(Retraction Watch)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익명의 국내제보자가 그동안 강수경 교수의 논문을 실었던 10개 국제학술지에 파일을 보내 강 교수의 논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7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강 교수가 14개 논문에 실었던 실험결과 사진을 비교하며 같은 사진을 중복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강 교수에게 연구비를 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서울대 연구처장 등 3곳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자료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제보 파일을 받은 국제학술지들은 조사에 착수하고 강 교수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ARS(항산화 및 산화환원신호) 학술지가 24시간 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논문 철회를 요구하자, 강 교수는 ARS에 게재한 논문 2편과 투고중이던 논문 2편을 회수했다.

강 교수는 이와 관련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라며 "해명으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논문 게재를 철회했고 추후 ARS측에 재실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받은 다른 학술지인 브레인(Brain)과 에이징셀(Aging Cell) 등은 강 교수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분 수정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 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전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번열이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담허겁(心膽虛怯)
몹시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항(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하수증 등에서 볼 수 있다.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케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증상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증상을 우선 개선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을, 심담기허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담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양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중-9062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침구과

진료안내 • 홧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1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 렌터카)

침 · 뜸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